기록적 폭설속 신속 대응

진안군, 민 · 관 · 군 합동 대대적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진안군은 지난달 27일에서 29일까지 2015년(적설량 22.5cm) 이후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진안읍에는 44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려 읍 소재지가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였다.

이에 진안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 · 관 · 군이 힘을 합쳐 1월 31일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제설작업에는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100여 명과 군부대 30여 명, 진안군청 전 직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굴삭기와 덤프 16대를 투입하여 도로와 보도 사이에 쌓인 눈을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눈이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결빙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진안군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해소되었다.

진안군은 신속한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복구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실시간 재난 예방 문자 발송, 마을 방송 및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등 폭설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 재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제설작업 추진 사항은 금일(31일) 제설작업을 포함하여 28일 비상근무 인력 30여 명이 오전 · 오후 2차례 투입, 29일 장비 4대와 직원 30여 명, 외국인 근로자 10명, 군인 30명 등 인력 70여 명을 투입, 30일 장비 10대, 인력 10명을 투입하여 5차례의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진안군은 기록적인 폭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 · 관 · 군이 힘을 합쳐 1월 31일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진안읍 A모씨(75)는 "진안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번처럼 3일 만에 50여mm의 눈 폭탄이 쏟아진 것은 처음이다."며 "다행히 군 행정과 각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제설작업에 주민들 불편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에 적극 참여해주신 사회단체, 군 장병, 그리고 군청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군민 안전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진안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마을 안길 등 일부 지역의 제설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시고,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에서는 탁구 꿈나무 선수 동계합숙 훈련이 한창이다.

탁구 친화도시 명성 높인다

무주군, 탁구 꿈나무 선수 동계합숙 훈련 한창

무주군에서는 탁구 꿈나무 선수 동계합숙 훈련이 한창이다.

2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작된 훈련은 오는 7일까지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전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중 선발된 38명의 선수와 지도자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수들은 무주읍에 머물며 기초체력 보강 및 전문 기술 강화 훈련, 볼스피드를 통한 스텝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및 인성교육 등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구 꿈나무 선수 동계합숙 훈련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탁구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무주군과 무주군체육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유소년 탁구 꿈나무 우수 선수를 발굴 · 육성해 한국 탁구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5회째 진행되며 16억원 정도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탁구 친화도시로서 지역 이미지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훈련장을 찾은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탁구 꿈나무 선수들이 실력과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여러분이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탁구를 빛낼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무주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뒷받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무주군에서는 탁구호스프(U12) 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탁구 지도자 자격증 실기시험,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 전국 시니어탁구대회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탁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 추진

장수군이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관내 경로당 282개소에 간식비를 추가지원 하는 등 경로당 운영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장수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열린 노인 민생토론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전국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수군은 올해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해 간식비를 기존 정액 간식비의 2배로 인상하고, 양곡(20kg)을 6포에서 8포로 확대 지원하는 등 어르신 복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 · 난방비 집행 잔액을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욱 부담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 생활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마을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공간이자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복지 실천의 현장이다"며 "어르신들의 활력 및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경로당 주5일 식사 제공 확대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24일까지 신청 접수

무주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군비 5,400여만원을 투입(이차보전금)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25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2024년도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를 적용해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매월 20일)한다.

지급 한도는 농가가 지역농협과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에서 250만원 선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실현 공약 이후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3억 7천여만 원, 월평균 지급액은 170만 원으로 시행 초기보다 월급 규모는 2억 3천여만 원, 대상은 37농가,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진안군가족센터 이전 개관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진안군가족센터 이전 개관식 개최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진안군가족센터 이전 개관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은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전용태 도의원,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 기념식,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안군 가족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 착공해 작년 9월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350.3㎡, 연면적 1,509.46㎡,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 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교류소통공간, 교육실, 상담실, 언어발달실, 사무실 등으로 다양한 가족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 의견 청취

장수군은 오는 7일까지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지와 분리된 3ha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으로 △1ha 미만 18권역 9.02ha △개발계획이 있는 1ha 이상 3ha 이하 2권역 2.66ha △도로지목 2.17ha로 총 21권역 571필지 13.85ha가 해당된다.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되며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해제 대상 토지는 장수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도로 · 하천 등 개발 후 남은 관내 자투리 농지의 이용규제가 완화된다"며 "이로 인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진안군은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이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과 건조한 날이 잦아지고, 이 시기에는 입산객과 임산물 채취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진안군(산림과)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과 산불감시원 58명 등을 배치해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안에 소각산불 대응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산림연접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 · 단속할 계획이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